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글로벌 강소도시 실현”

2025년 나주시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11만6654명
 · 예산 1조90억원
 · 직원수 1167명

#역점사업
 · 전남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
 · 나주에너지글로벌포럼 개최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
 ·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준비
 ·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2025 새해설계

윤병태 나주시장

105억원 규모 푸드테크연구센터 착공
 농특산물 수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인공태양시설 유치 에너지 허브 성장
 35건 190억원 규모 긴급 지원책 시행

“올해 500만 나주 관광시대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나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축산 생명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과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천년이음나주배 기반 확대와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391억원 규모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10월23일부터 11일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4년만에 나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행사를 치릴



윤병태 나주시장

하게 준비해 박람회 성과가 나주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국에너지공대와 협력해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착공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나주를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에너지국가산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

해 산업용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관광산업에서는 영산강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영산강 정원 조성 500만 관광시대를 구축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 영산강 축제를 기반으로 나주를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이밖에 영산강 삼백리길 조성사업,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등 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복지와 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빛가람초등학교 신설과 중학교 학급 부족 문제 해결, 나주애배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전세버스·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총 35건, 190억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새해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혼란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 위기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김용의 기자

현수막 지정계시대 위탁 대행료 한시적 인하

민생안정 종합대책 일환

나주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국 혼란 속에 자영업자 등 서민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수막 지정계시대 위탁관리 대행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행료 인하로 대행료가 50%(9000원 → 4500원) 줄어들어 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수막 지정계시대 위탁관리 대행료 인하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지역 행사 및 지역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는 수탁자인 (사)전남도육외광고협회 나주시지부를 통해 지정 계시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인화된 대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청 공무원과 한전KDN 임직원,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 회원 50여명이 지난 9일 ‘설탕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전통시장 10%페이백...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나주시청 공무원과 한전KDN 임직원, 지역 상인회와 소비자단체 회원 50여명이 빛가람동 한전KDN사거리에서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는 ‘설탕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나섰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캠페인 일환으로 1월 ‘설 명절 전통시장 10%페이백’, ‘나주사랑카드 추가 5% 캐시백 적립’, ‘타지역 거주자 금·토·일 나주사랑카드 사용 시 5% 캐시백’, ‘착한가격업소 5%추가 캐시백’ 등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

다. 전통시장 10%페이백 이벤트는 목사고을시장(19일·24일·25일), 영산포품물시장(20일·25일), 남평5일시장·공산5일시장(21일), 세지5일시장(22일), 다시셋골시장(23일)에서 지난 추석(6회) 비3회 증가한 총 9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5만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상인회 사무실 등 상품권 배부처로 제출하면 5만원 단위로 소비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의 한 농가에서 한라봉 수확이 한창이다. 나주는 지난 198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라봉을 도입한 지역이자 전남도 내 최대 주산지이다. 나주시 제공

설 명절 앞두고 ‘나주산 한라봉’ 수확 한창

새콤달콤한 맛·비타민C 풍부

설 명절을 앞두고 새콤달콤한 맛과 비타민C가 풍부한 겨울철 대표 과일인 나주산 ‘한라봉’ 수확이 한창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나주산 한라봉 국내 판매가격은 7~8과를 담은 3kg박스 기준 2만7000원 대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봉 선물 세트는 나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라봉은 감귤보다 당도와 비타민C가 높으며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 피부 미용 등에 좋다. 100g당 48kcal 정도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건강 과일로 꼽힌다.

나주는 지난 198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라봉을 도입한 지역이자 전남도 내 최대 주산지이다.

지난해 도내 한라봉 생산량의 약 57%가 나주지역 농가에서 생산됐다.

나주지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일조량이 타 지역보다 500~600시간이 많은데다 사질양토의 비옥한 토양으로 고당도,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주산 한라봉은 2014년 발족한 ‘한라봉 연구회’(회장 김철동)를 중심으로 40여 농가(총면적 24.4ha)에서 생산하고 있다. 연구회는 격월 연구회원 간 모임을 통해 신기술 습득과 마케팅 정보를 교류하면서 나주산 한라봉 특산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2년엔 처음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베트남에 한라봉 600kg를 수출하기도 했다.

황금빛 빛깔의 한라봉은 베트남 현지에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명절 선물

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는 한라봉 연구회와 함께 재수출 판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김철동 회장은 “한라봉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좋은 겨울철 대표 건강 과일이다”며 “신선하고 달콤한 맛,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나주 한라봉을 이번 명절 선물로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역특화작물인 한라봉 농가 육성을 위해 올해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지도와 농업환경 계측 및 제어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춘옥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주배와 더불어 설 명절 선물로 고품질 과일 경쟁력을 갖춘 나주산 한라봉을 지역 대표 농특산물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